

황우석 지지자들의 심리에 대한 신화학적 분석

이준석 (서울대)

1. 들어가는 글

2005년 11월 22일 문화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PD 수첩』은 「황우석 신화의 난 자매매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방송분에서, 당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던 황우석 석좌교수의 연구에 연구부정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약 두 달간 한국사회는 미증유의 과학부정사태를 밝혀내기 위한 대학당국의 노력과 그를 둘러싼 일반인 및 소장과학자들의 황우석 지지와 비판, 언론의 보도 열기로 들끓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발표 직후 급기야 검찰이 개입하여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약 반 년간에 걸친 해프닝은 2006년 5월 12일 검찰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이하 '황우석 사건')¹⁾은 황우석이 논문조작에 적극 개입하였고, 그 외에도 비정상적 자금 운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밝힌 검찰의 수사결과로 마무리 지어졌다.²⁾

이렇게 명백하게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부는³⁾ 아직도 황우석의 연구부정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특허권과 관련된 정치·경제적인 이권싸움에서 황우석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예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서비스에 개설한 「아이러브 황우석」⁴⁾ 황우석 지지자 연대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 『

- 1)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형성에 성공하였음을 Science에 보고한 논문이 연구부정의 결과물임이 드러난 사건의 공식 명칭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다. (2006년 5월 12일 발표 서울중앙지검 보고서) 이하 이 글에서는 편의상 '황우석 사건'으로 칭한다.
-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 수사결과」, 2006년 5월 12일 검찰발표자료 14-109쪽.
(http://seoul.dpo.go.kr/download.tdf?table=gp_board_file&d_seq=506&d_idx=4&d_board_id=sppo_press)
- 3) 속칭 '황빠'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집단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황우석 지지자'로 표기한다.
- 4) <http://cafe.daum.net/ilovehws>.

서프라이즈』의 자유게시판⁵⁾, 그리고 (주)디지털 인사이드의 『디지털 인사이트』 사이트에 개설된 「과학 갤러리」⁶⁾ 등에 여전히 올라오는 황우석 지지자들의 글에서 쉽게 발견되어진다.

심지어 전 경기대 법학부 교수이자 법정대학원장을 역임한 고준환 국사찾기협회의 회장은 『뒤편에 걸린 황우석』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⁷⁾ 이 책은 다음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제 1장의 「황우석은 누구인가?」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뒤편에 걸린” 황우석의 연구팀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제 2장 「황우석 교수연합팀의 구조와 연결세력」은 새튼과 미제국주의적 속성, 문신용·서울대조사위·KS세력, 노성일·보광창투·삼성그룹, 윤현수·한양대의대 3인방, 안규리·정진석추기경·로마교황청의 세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3장과 제 4장은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기술 및 Science에 제출한 논문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제 5장에서 MBC 『PD 수첩』과 KBS 『추적 60분』 등 언론계의 공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인 제 6장과 제 7장에서는 기존의 세력들 특히 황금박쥐 정권이 변신을 하여 황우석 개인이 모함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 8장에서 황우석이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준환은 「생명공학적 특허법제에 관한 연구」등의 논문⁸⁾과 『기업법원론』, 『국제거래법론』, 『하나되는 한국사』등의 학술서를 출간한 중견 학자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기호 8번 백승원 후보의 예도 있다. 그는 ‘세계 최고의 Bio-City 건설’, ‘서울지역 남북네트워크 특별지역(경제특구) 건설’, ‘동북아시아 허브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정부기관부지 활성화’ 등을 포함한 5대 공약의 다섯 번째로 ‘줄기세포의 특허기술 확보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였다.⁹⁾

- 5)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list_new.php?code=seoprise9&search_m=1
 노무현 지지자들의 모임이었던 『서프라이즈』(사이트 주소부터 ‘노짱(“노무현 짱(최고)”의 약어) 닷 서프라이즈 닷 컴’임에 유의하라.)가 어찌서 황우석 지지자들이 사이버상에서 회합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곳이 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의문점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질문이지만, 현재 가장 설득력있는 설명은 김환석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 실은 「‘노빠’와 ‘황빠’」라는 글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김환석 교수에 의하면, 서울대 72학번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황우석이 서로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이태환 전 국무총리 및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매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로까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황우석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체로 겹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노빠의 일부가 황교수에 대한 맹목적 지지세력인 황빠로 변질된” 결과를 낳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521.html>)
- 6) <http://kr.dcinside14.imagesearch.yahoo.com/zb40/zboard.php?id=science>.
- 7) 고준환, 『뒤편에 걸린 황우석: 긴급보고서』 (도서출판 담계, 2006).
- 8) 이 논문은 위 책에 부록으로 실려 있음.
- 9) 이 글은 『황우석 박사님의 사필귀정과 난치병정복』이라는 황우석 지지자 블로그에 실린 인터뷰에서 재인용함 (<http://blog.empas.com/jsmain/14123137>). 백승원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이상의 예는 지금 시점에서조차 황우석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물론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이른바 '황지국')은 공동대표 우동일·강재천 명의로 2006년 4월 28일 「정명희 교수님 및 정운찬 총장님 등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동안 견지했던 황우석 지지 입장을 철회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하였다.¹⁰⁾ 그렇지만 '황지국'의 입장선회에 모든 황우석 지지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황우석을 지지하고 있다.¹¹⁾ 이들의 활동은 아이러브황우석 카페나 서프라이즈 등의 인터넷 게시판,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텐트를 치고 몇 주째 항의농성을 벌이는 '무타스남'의 행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준환 교수, 백승원 시장후보, 박사과정 임 모양, 그리고 여전히 황우석을 지지하는 수많은 한국인들... 연구부정이 확실히 드러난 이 시점에도 황우석을 지지하며 그가 다시 연구를 재개하기를 기대하는 이들의 심리는 언어중심주의적(logo-centric) 이성으로 환원해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김철수사 결과는 분명한 논리와 언어로 황우석의 실체를 밝히고 있고, 이는 모호하지 않은 이성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앞서 언급한 세 명의 황우석 지지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의 일반적 속성으로 볼 때 한국 국민의 평균보다 떨어지는 지성을 소유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황우석을 여전히 지지하고, 또 황우석이 연구를 재개할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인가?

2 기호학적 접근: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해석들

20세기 초·중반은 구조주의가 지배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비롯된 구조주의는 이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인류학 등 서구의 사상사를 지배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 데탕트의 분위기를 타고 발생한 지식혁명의 분위기에서 탈구조주의, 혹은 후기구조주의가 발현하였다. 오늘날 대표적인 후기구조주의자로 손꼽히는 사상가에는 료타

상세한 설명과 주장의 논리는 그의 홈페이지(<http://ebsw.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의 지지 철회과정과 성명서 전문(全文), 그리고 그에 대한 재반론은 인터넷 한겨레의 다음 보도를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3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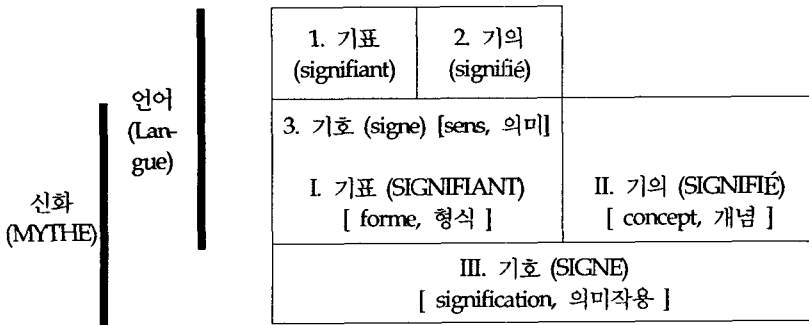
11) 가령 '황지국'이 성명서를 정식으로 발표하기 하루 전인 4월 27일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본 부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이미 입장선회가 알려져 있던 '황지국'의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도높은 발언을 하였다. (위의 사이트)

르, 들뢰즈, 푸코, 데리다, 라캉, 롤랑 바르트 등이 있다.¹²⁾

김채수(1992)는 이러한 구조주의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서 설명한다. 우선 야콥슨의 구조언어학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맑시즘의 세 가지가 혼용되어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인류학이 탄생하였다. 인간 문화의 심층에 내재된 보편적 정신구조를 탐구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1955)는 구조주의의 일반화가 시작된 작품이다. 그리고 야콥슨의 구조언어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맑시즘의 세 조류는 레비스트로스를 거치면서 각각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예비평과, 라캉의 정신분석이론 및 푸코의 역사·사회이론으로, 그리고 루이 알튀세의 맑스주의 구조분석으로 발전하였다.¹³⁾

이러한 과정으로 발달한 구조담론중 이 글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이다. 바르트는 『현대의 신화』(1957)에 실린 「기호학적 체계로서의 신화」에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소개한다.

<도표 1> 롤랑 바르트의 기호의 체계



이에 대한 바르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화에는 두 개의 기호학 체계가 있는데, 그 한 체계는 다른 체계에 비해 상자 밖으로 벗어나 있다. 언어학적 체계, 즉 언어(혹은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표현 양식들)를 대상언어활동(langage-objet)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가 자기 자신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탈취한 언어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화 자체는 그 언어 속에서

12) 엄밀히 말하면 푸코는 구조주의에서 후기구조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인물이다. 또 라캉은 62년 쿠바 위기당시 62세였으므로 구조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로 보아야 하며, 바르트는 역시 쿠바혁명 당시 47세였고 68년 5월 혁명에 이미 50대 중반이었으므로 구조주의시대를 대표하는 비평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적이다. (김채수 편저, 『후기구조주의를 넘어서』 (도서출판 세손, 1992), 26-30쪽.)

13) 김채수, Ibid, 29-33쪽.

첫 번째 언어에 대해 이야기되는 두 번째 언어이므로, 메타언어활동(méta-langage)이라 부르겠다.”¹⁴⁾ 이처럼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사상체계를 ‘언어의 영역’으로 놓고, 이를 대상언어의 활동공간으로 보았다.

언어의 영역에서는 기표(1. signifiant)와 기의(2. signifié)가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기호(3. signe)를 형성한다. 이 기호(3. signe)를 바르트는 의미(sens)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언어영역보다 깊은 하부구조에는 암묵적인 ‘신화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 차원에서의 작용을 바르트는 메타언어활동으로 보았다.¹⁵⁾ 이때 언어영역의 기호(3. signe)는 곧 신화영역의 기표(I. SIGNIFIANT)가 된다.¹⁶⁾ 바르트는 이를 형식(forme)이라 불렀다. 그에 대한 기의(II. SIGNIFIÉ)는 개념(concept)이 되고, 다시 암시적 차원에서 기표(I.)와 기의(II.)가 함께 작동하여 하나의 기호(III. SIGNE)를 생성한다.¹⁷⁾

이를 정리하면, 명시적 차원의 의미(3. signe=sens)는 암시적 차원에서 신화의 형식(I. SIGNIFIANT=forme)으로 작용하고, 그 이면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개념(II. SIGNIFIÉ=concept)과 작용하여 하나의 ‘신화의 기호’(III. SIGNE)를 형성한다. 이것이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다.

롤랑 바르트는 일반인들에게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는 뾰뚱 브루조아의 가치관을 폭로하고 그를 비판하기 위해 이 도식을 고안하였다. 이것이 『현대의 신화』에서 프로레슬링에서 스트립쇼까지를 분석하며 그가 드러내고자 한 ‘그 시대의 신화’다. 그러나 사회는 항상 변화하며, 명시적인 현상 배후에 숨겨진 암묵적인 신화체계도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위 도표의 ‘신화’는, 우리 사회의 문화 도처에 침투해 있으면서 은폐된 상태로 작동하여 그 기제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가치관을 모두 의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전동열(2005)은 “1차적 체계의 이면에 숨겨진 2차적 체계의 메시지”를 곧 ‘신화’로 해석한다.¹⁸⁾ 또 김경용(1994)은 모래와 관련된 두 편의

14) 도표 및 그에 대한 설명은 R. Barthes, *Mythologies* (Seuil, 1957), 롤랑 바르트 저,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문예신서 v.193, 267-275쪽에서 인용하였다.

15) 베르나르 투쟁은 ‘명시적 의미(denotation)’와 ‘암시적 의미(connotation)’라는 개념이, 바르트보다 20년 먼저 덴마크 언어학자 루이 엘름슬레브(Louis Hjelmslev)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투쟁에 의하면 엘름슬레브는 일차적 의미복합체와 암시적의미의 2차 복합체를 정의하였고, 이는 언어와 메타언어 사이의 유명한 구별을 낳았다. (베르나르 투쟁 저, 윤학로 옮김,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창하, 1987), 68-72쪽).

16) ‘신화의 영역’은 로마숫자와 대문자 알파벳을 사용하며, 아라비아숫자와 소문자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의 영역’과 구분한다.

17) 베르나르 투쟁은 이를 간략화시켜 I-단계의 ‘기표 명시적 의미’와 ‘기의 명시적 의미’의 차원, II-단계의 ‘기표 암시적 의미’와 ‘기의 암시적 의미’로 구분한다.(베르나르 투쟁, op. cit., 74-79쪽.) 그러나 그 틀은 역시 바르트의 3단계 분류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8)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69쪽.

창작 이야기를 통해 신화의 본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신화란 “어떤 과학적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호학적 의미작용에 의해 어떤 현실이 외시의미적 수준에서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적용 가능한데, 그 까닭은 현재 우리들에게 “텍스트는 더 이상 문화적 가공물같은 물체적인 것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이 텍스트가 되기 때문”이다.¹⁹⁾

바르트의 이 기호학적 분석들은 텍스트와 사회현상 제반을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정치학자 로즈노우(Pauline Marie Rosenau)에 의하면 “생활경험, 전쟁, 혁명, 정치시위, 선거, 인간관계, 휴가, 이발하기, 차 사기, 직장잡기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텍스트”이다.²⁰⁾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황우석 사태도 하나의 텍스트로서 파악하여 이러한 기호적 해석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바르트의 도표에 황우석 사건을 대입하여 황우석이라는 과학자 개인이 어떤 기호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표는 다음과 같다.

<도표 2> 바르트 체계에 대입한 황우석 신화

명시적 차원 (언어) 암묵적 차원 (신화)	1. 기표 (황우석의 '이미지')	2. 기의 (실제 황우석)
	3. 기호 I. 기표 (영웅적인 과학자)	II. 기의 (국가적 애국자, 박정희 패러다임에 의한 경제발전, IMF이후 경제난을 극복할 33조원 ²¹⁾ , 난치병 획기적 치료, 영원인 노벨상과 과학 선진국화)
	III. 기호 (SIGNE) (이 시대 한국에 태어난 영웅)	

이는 초기 바르트 기호학에서 도출된 형식에 황우석이라는 개인을 대입한 결과다. 우선 명시적 기표(1.)로서의 황우석이 있다. 이는 가장 뚜렷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비추어진 황우석의 행적과 이미지 그대로이다. 이는 기의가 아닌 기표이므로 숨은 뜻을 찾을 수 없다. 단순한 이미지 그 자체다. 그 다음은 명시적

19)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169-173.

20) P.M. Rosenau,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structions* (Princeton Univ. Press), pp. 35-36. 김경용(1994), 173쪽에서 재인용.

21) '연간 33조원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수치는 STEPI 발간 2005년 11월 보고서에 근거한다.

기의(2)이다. 사람들은 황우석의 명시적 기표에서 발견한 황우석의 이미지에서 그 기의를 찾는다. 이는 그동안 언론에 의해 보도된 황우석의 얼굴과 목소리 등이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청자가 접한 황우석의 이미지와 황우석 자신을 연결한다. 이렇게 하여 명시적 차원의 기호(3.)가 완성된다. 우리는 황우석의 이미지를 보고(1.) 그것을 황우석 개인과 연결시키며(2.) 마지막 단계(3.)에서 '세계 최초로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어 Science에 논문까지 냈던 영웅적인 과학자'라는 기호를 우리의 마음속에 완성시킨다.

하지만 엘름슬레브와 바르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명시적 의미(denotation) 뒤에는 암묵적 차원의 의미(connotation)가, 바르트의 용어를 빌면 즉, '신화'가 존재한다. 이제 황우석과 관련된 암묵적 신화를 찾아볼 차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시적 차원의 기호(3.)는 곧 암시적 차원의 기표(I.)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웅적인 과학자"라는 용어가 가지는 여러 기의들이 숨어 있다.(II.) 이들은 대체로 대단한 애국자로서의 황우석²²⁾, IMF 이후 경제난을 겪은 한국에 33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과학자, 그리고 세계최초로 난치병·불치병을 줄기세포조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과학자,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가수 강원래를 휠체어에서 일으켜줄 과학자의 개념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 암시적 기의와 기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신화적 차원의 기호(III.)가 완성된다. 황우석이라는 기호가 갖는 암묵적 신화는 이상 언급한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동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난 영웅-과학자이다.

그렇다면 과학자이기에 앞서 한 명의 영웅인 황우석은 어떤 존재인가? 황우석은 국민국가시대 이후 형성된 새로운 영웅의 관념에 충실한 존재로서, 애국담론의 중심점이 되는 인물이었다. 근대이후 영웅의 특징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인 '우리'라는 범주로 묶어주는 상상의 원천"이라고 박지향(2005)은 정리한다.²³⁾ 이는 "영웅은 구성원 전부를 상하·수평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매체)였고, 다시 민족 정체성이라는 숨은 신이 되어 구성원의 내면을 조종해 나갔다."는 오선민(2003)의 주장과 일치한다.²⁴⁾ 결국 황우석이라는 한 명의 인물은 명시적인 과학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영웅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 그의 첫가락 담론과 미국에 태국기를 꼽고 돌아왔다는 수사법 및 "과학엔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에게 조국이 있다"는 파스티르의 말을 자주 언급한 점이 애국주의라는 기의를 작동시킨다.

23) 박지향 외, 『영웅 만들기: 신화와 역사의 갈림길』 (휴머니스트, 2005), 26쪽.

24) 오선민, 「전쟁서사와 국민국가 프로젝트」, 이승원 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222쪽. 박지향 외, Ibid, 26쪽에서 재인용.

필자는 황우석이 한국인의 집단기억 속에서 이러한 영웅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이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말 IMF 위기를 겪은 한국사회는 '국가적 영웅의 부재'라는 공허한 경험을 체험하였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한나라당이 만년 야당으로 남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 중심적인 정치적 영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70-80년대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경제주역과 재벌들이 연일 고발되고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는 경험을 통해, 재계에서 우러러보이던 기존의 영웅들이 모두 몰락하는 경험을 하였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정치·경제적 영웅이 소멸하였을 때 유일하게 대중의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스타들도 연이은 마약복용에 따른 구속사건, 연예인 매니저 및 방송국 피디 금품수수사건, 오양과 백양 비디오 사건, 최진실 매니저 살해 사건, 남자연예인 병역비리사건 등으로 어두운 이면들이 계속 드러나자 더 이상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 시기 대중의 정신적 공허를 메꾸어 준 영웅은 스포츠분야에서나 탄생할 수 있었다. 우선 박찬호가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리그에 진출하여 야구에 관심없는 사람도 TV앞에서 밤늦게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박세리가 한국인 골퍼 최초로 LPGA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일본에서의 이종범·이승엽의 활약²⁵⁾, 박찬호의 뒤를 잇는 김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 김미현·박지은 등 여자골퍼들의 활약, 박지성·안정환·이천수 등 축구선수의 활약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스포츠 영웅이라는 존재는 해당 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결국 전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적 영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²⁶⁾

그 공백을 "세계 최초"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등장하며 메꾼 인물이 바로 황우석이다. 더욱이 위에 언급한 정치·경제·문화·스포츠의 영웅이 모두 상대적인 가치를 다루는 직업군(群)이라면, 과학은 일반인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진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있던 터였다.²⁷⁾ 한국사회의 과학주의적 성향과 맞물려 황우석의 영웅화

25) 한국 프로야구 선수의 일본 진출은 1996년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렬 투수가 시초이다. 그러나 이는 IMF 이전 시기이므로 이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26) 비슷한 맥락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위기의 시대에 처한 구한말 우리나라에 영웅론이 수입된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이헌미, 「한국의 영웅론 수용과 전개, 1895-1910」,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2004년 2월)) 사회가 불안정하고 시대가 불분명할 때 대중은 그들의 구심점이 되어줄 영웅을 필요로 한다. 황우석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런 시점이었다.

27) 황우석 사태의 원인의 하나로 박정희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과학주의'가 많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주최,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의 과학과 민주주의」 심포지움 발표문 (2006년 2월 2일)인 강신익,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문화 진단」과 홍성태, 「황우석 사태와 한국 사회」를 참조하라.

는 이루어졌고, 그의 영웅으로서의 지위는 “노무현 지지자와 비판자가 동시에 좋아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그의 정치적 무당파성이 개입하여 더욱 공고해졌다.²⁸⁾ 그 외에도 한국 언론의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태도 역시 황우석 우상화에 일조하였다.²⁹⁾

3. 융 분석심리학의 ‘무의식’ 및 ‘원형’ 개념과 캠벨 비교신화학의 ‘영웅의 궤적’

<도표 2>에서 우리는 황우석을 바르트의 신화적 체계에 대입하여 살펴보았다. 그 이후의 논의에서 밝혔듯 황우석은 한국 사회에서 공고한 영웅으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였다. 그렇다면 <도표 2>에서 암묵적 기호로 지칭한 신화 단계의 해석이 황우석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칼 구스타프 융이 그의 분석심리학의 토대로 주장한 ‘무의식’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융(1984)은 집단무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더 깊은 층이 소위 집단적 무의식(das kollektive Unbewusste)이다. 나는 '집단적'이란 표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무의식이 개인적이 아닌 보편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개인적 정신과는 달리 모든 개인에게 어디서나 똑같은 내용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초개인적 성질을 지닌 보편적 정신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³⁰⁾

즉 인간 개개인에게는 개인차를 무시하는 보편적 정신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융은 이를 집단무의식이라고 불렀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가설이 아니라 정신과 임상 의로서의 수많은 상담을 통해 그 존재가 뒷받침되어진다. 집단무의식에 이어 융은 그러한 집단무의식에는 일종의 원형(archetype)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융의 설명을 인용하겠다.

28) 홍성욱,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현대과학사』 2006년 1학기 강의노트 발췌 (필자 기록).

29) 한국언론의 보도태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인재, 「황우석 교수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문제와 연구윤리」, 『ELSI 연구』(제 4권 제 1호: 121-157)의 146-148쪽을 참조하라. 특히 황우석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지나친 영웅화의 경향을 로고스 전략 에토스 남용·파토스 남용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문제를 지적한 전방욱, 「우리나라 언론보도에 나타난 배아복제 연구자들의 수사 분석」, 『생명윤리』, 제 6권 제 1호(통권 제 11호): 109-122는 유익하다.

30) C.G. Jung, Archetyp und Unbewusstes (Walter-Verlag, 1984), 칼 구스타프 융 저,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솔, 2002), 106쪽.

집단적 무의식의 관념에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원형(Archetypus)의 개념은 정신 속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있고,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일정한 형식들(Formen)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신화학적 연구에서는 이것들을 ‘주제(Motive)’라 부르고, 원시인 심리학에서는 레비 브뤼엘의 ‘집단표상(集團表象, representations collectives)’에 해당되며, 비교종교학 영역에서는 후베르트(Hubert)와 마우스(Maus)에 의해 ‘상상의 범주들’이라 정의된다. 아돌프 바스티안(Adolf Bastian)은 그것들을 일찍이 ‘기본적 또는 원초적 사고’라고 이름하였다. 이상의 설명으로 나의 원형의 개념이 -글자 그대로 선재(先在)하는 형식- 오직 나만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인정되고 명명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을 것이다.³¹⁾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집단무의식을 밝히고 그 집단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인간사고방식의 보편적 형태로서의 원형(archetype)의 존재를 주장하였다.³²⁾ 아울러 원형의 개념이 자신의 독단적 이론이 아니라 여타 학문분야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³³⁾

융의 집단무의식 및 원형에 대한 이론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영향을 주었고, 토인비로 하여금 여러 사회간의 문화적 편차를 해석하는 19세기 이론들의 한계를 깨닫고 신화학에 참고하도록 하였다.³⁴⁾ 그러나 융의 원형 개념이 원질신화의 개념으로 전유되어 비교신화학에 본격적인 영향을 준 것은³⁵⁾ 신화학자 조셉 캠벨(Joseph

31) C.G. Jung Ibid., 156-157쪽.

32) 신동욱(1992)은 이를 다른 학자들의 이론과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현대의 학자들은 원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원형은 핵심적인 인간경험의 기본적으로도 오래된 유형이고, 그것은 특수한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어떤 시(또는 다른 예술)의 근저에 존재한다(하이만). 혹은 브룩스(C. Brooks)가 정의한 것처럼 원형이란 근본적인 이미지, 집단무의식의 한 부분, 같은 종류의 무수한 경험의 심리적 잉여를 의미하고, 그리하여 인류의 상속받은 반응유형의 한 부분을 의미하게 된다. 신화비평에 있어서 이 원형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융, 바로 그에게서 그것에 관해 들어 보아야 한다. 『정신과 상징』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형은 결코 쓸모없는 고대의 잔존물이거나 유물이 아니다. 원형을 살아있는 실체이고 신령사상의 전성 혹은 주요한 상상력을 나의 원형에 대한 개념이 사고의 외연을 나타내는 물려받은 유형으로, 또는 철학적 성찰의 일종으로서 흔히 잘못 이해하여 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원형은 본능의 활동영역에 속하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것은 심리적 형태를 물려받은 형태를 나타낸다.” (신동욱 외,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16-17쪽).

33) 물론 원질신화(이윤기의 번역) 혹은 단일신화에 대한 반론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미국의 소설가 보네곳(Kurt Vonnegut)은 캠벨식의 해석이 지나치게 바로크적이고 단순화한 일반화라고 주장하며, 이를 "in-the-hole theory"라고 조롱하였다. 즉 “영웅이 구덩이에 빠지고, 영웅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식으로 뻘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http://en.wikipedia.org/wiki/Monomyth>).

34) E.A. Bennet, What Jung Really Said. (Little Brown, 2001, New Edition), 에드워드 암스트롱 베타 저, 김형섭 옮김, 『한권으로 읽는 융』 (도서출판 푸른숲, 1997), 96-97쪽.

Campbell)의 저서들을 통해서이다.

캠벨(1949)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세계에 존재하는 영웅 신화들을 집대성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캠벨에 의하면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는 영웅 신화들에서 공통된 궤적이 발견되어진다. 그는 영웅이 운명적으로 걸어야 하는 12단계를 다음처럼 구분하였다.³⁶⁾

1. 보통세상(ordinary world)
2. 모험에의 소명(call to adventure)
3. 소명의 거부(refusal of the call)
4. 조연자와의 만남(meeting with the mentor)
5. 관문통과(crossing the threshold)
6. 시험, 협력자, 적(tests, allies and enemies)
7. 접근(approach)
8. 시련(ordeal)
9. 보상(reward)
10. 귀환(road back)
11. 부활(resurrection)
12. 묘약과의 귀환(return with the elixir)

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우선 모든 영웅신화의 첫 번째는 '보통세상(1. ordinary world)'으로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독자 혹은 관객들은 영웅을 만나고, 영웅의 야망과 한계를 알게 되고, 영웅을 받아들이고 동일시함으로써 영웅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모험에의 소명(2. call to adventure)'이다. 이 단계에서 영웅은 보통 타의에 의해 떠밀려서 탐색의 여행에 오르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소명의 거부(3. refusal of the call)'다. 모험의 소명을 받은 영웅은 대개 일반인들처럼 그에 대해 망설이거나 공포를 드러내는 단계를 거친다.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초자연적 조력' 혹은 '조연자와의 만남(4. meeting with the mentor)'이다. 이 단계에서 영웅은 확신·경험·지혜의 원천과 접촉한다. 이 조연자는 영웅에게 매우 귀중한 조력을 하며 영웅으로 하여금 관문을 통과하

35) 많은 비평가들이 프레이저, 캠벨, 래글런(Raglan) 등의 이론을 수용하여 영웅담론에서의 원질신화(monomyth)의 존재에 동의한다. (신동욱 외, op. cit., 19쪽.)

36) J.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Univ. Press, 1949),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도록 도움을 준다.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첫 관문통과(5. crossing the threshold)'이다. 이는 의미 그대로 문지방을 통과하는 단계다. 여기서 영웅은 모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특별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시험·협력자·적(6. tests, allies and enemies)'의 단계다. 이들은 영웅이 들어간 그 특별한 세상에서 무엇이 특별한가를 발견하도록 영웅을 이끌어주는 상황과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인 '접근(7. approach)'이 있다. 여기서 영웅은 실패하고 좌절한 세력들과 죽음의 세력들에 맞서 싸우는 핵심전투를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의 '시련(8. ordeal)'이 있다. 이 단계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기로, 영웅이 최대의 공포와 맞서고 죽음을 맞보는 곳이다. 다음 아홉 번째 단계는 '보상(9. reward)'이다. 이 단계에서 영웅은 다시 태어나서, 공포와 죽음을 극복한 데에 대한 보상을 만끽하게 된다. 열 번째 단계는 '귀환(10. road back)'이다. 이제 영웅은 모험이 끝났음을 천명하고 특별한 세상을 떠나거나 특별한 세상에서 벗어나려다가 최후의 추격을 당한다.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기 직전단계다. 그리고 열 한 번째 '부활(11. resurrection)'의 단계가 있다.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관문에서 영웅을 정화하고 속죄와 변신을 겪게 하는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시험의 존재다. 마지막으로 열 두 번째 '묘약과의 귀환(return with the elixir)' 단계가 있다. 여기서 영웅은 귀환하게 되며, 그가 여정에서 얻은 것을 나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친구들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계가 이익을 얻는다.³⁷⁾

37) 이상의 열 두 단계는 캠벨 비교신화학의 핵심이론이 되는 원질신화(monomyth)의 구조이다. 이에 대해 캠벨 자신이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대목으로 Csapo(2005)는 다음의 구절을 소개한다. "The mythological hero, setting forth from his commonday hut or castle, is lured, carried away, or else voluntarily proceeds, to the threshold of adventure. There he encounters a shadow presence that guards the passage. The hero may defeat or conciliate this power and go alive into the kingdom of the dark (brother-battle, dragon-battle; offering, charm), or be slain by the opponent and descend in death (dismemberment, crucifixion). Beyond the threshold, then, the hero journeys through a world of unfamiliar yet strangely intimate forces, some of which severely threaten him (tests), some of which give magical aid helpers). When he arrives at the nadir of the mythological round, he undergoes a supreme ordeal and gains his reward. The triumph may be represented as the hero's sexual union with the goddess-mother of the world (sacred marriage), his recognition by the father-creator (father atonement), his own divinization (apotheosis), or again - if the powers have remained unfriendly to him - his theft of the boon he came to gain (bridetheft, fire-theft); intrinsically it is an expansion of consciousness and therewith of being (illumination, transfiguration, freedom). The final work is that of the return. If powers have blessed the here, he now sets forth under their protection (emissary); if not, he flees and is pursued (transformation flight, obstacle flight). At the return threshold the transcendental powers must remain behind; the hero re-emerges from the kingdom of dread (return, resurrection). The boon that he brings restores the world (elixir)." (Campbell,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1949), pp. 245-246; Csapo, *Theories of Mythology* (Blackwell Publishing, 2005), p. 202).

이상 열 두 단계는 대체로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채 약간씩의 변화만을 보이면서 대다수의 영웅 신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신화소(神話素, mytheme)라는 것이 캠벨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음의 집단무의식과 원형 이론을 받아들인다.³⁸⁾ 물론 캠벨이 귀납적으로 발견한 영웅신화의 공통구조가 모든 신화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상황에 맞추어 스토리상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령 캠벨은 모티브와 양식(스타일)을 구분하였다. 모티브는 신화를 형성하는 신화적 동기 혹은 신화적 주제를 의미한다. 인종과 지역에 무관하게 모든 인류는 정신구조상 동일한 신화적 모티브를 공유한다.³⁹⁾

이렇게 공유되는 모티브는 음이 주장하는 집단무의식 속에 신화의 원형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언어·시간·장소가 서로 다른 모든 문화권에 걸쳐 영웅신화들이 공통된 궤적을 갖는 이유다.

한편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 두려움의 대상, 자신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자연과 사회의 현상을 목격하였을 때 이를 신화로 투사하여 표현해왔다. 이것이 신화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다. 자신들의 이성으로 해석하고 판단의 준거점을 마련하는 영역을 넘는 체험을 하였을 때, 인간은 신화를 만들어 내거나 신화에서 설명을 빌려오곤 하였다. 원시인이 번개·폭풍·해성 등의 두려운 자연을 경험했을 때, 근대인이 죽음과 탄생, 시간의 흐름에 관한 설명을 필요로 했을 때, 근대인이 사회를 통합할 구심점이 필요하거나 민족적 고난의 이유를 찾고자 했을 때 인간은 신화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신화에서 설명을 발견함으로써 답변을 얻었다.

“초기 문명인들은 문학·예술·국가·사회·법률·종교·인생의 제 가치 등에 대한 제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얻으려 시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형을 제시하였던 것”이라고 분석한 이용찬(1985)의 설명은 이를 나타낸다.⁴⁰⁾ 사전에 실린 신화의 다섯 가지 정의를 언급하며 신화가 인류에게 현상을 이

38) 이러한 영웅신화 분류이론이 캠벨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는 영웅신화에 공통되는 3단계 모티브의 반복을 주장하였고, 오스트리아의 요한 게오르그 폰 한은 타일러의 각본을 확대하여 아리아인 영웅의 삶을 16가지 측면으로 구분했다. 또한 래글런은 영웅의 삶이 가진 22가지 속성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신화속에서 인류 최초의 경험의 잔재와 반복적인 동기 및 원형의 집단을 발견한” 칼 구스타프 음의 견해와, 음의 제자 에릭 노이만(Erich Neumann)이 분류한 다섯 가지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N. Hathaway, *The Friendly Guide to Mythology* (Penguin, 2001), 낸시 해더웨이 저, 신현승 옮김, 『세계신화사전』 (세종서적, 2004). 381~389쪽.) 신화에 대한 프로이트적 해석은 E. Csapo, *Theories of Mythology* (Blackwell Publishing, 2005). p. 96을 참조하라.

39) 신화적 모티브는 지역마다 다른 양식으로 나타난다. 캠벨은 이를 각 지역의 독특한 서명(signature)이라고 부른다. (캠벨, 『신의 가면 II. 동양신화』 (1999) 615쪽, 역자의 말).

40) T.H. Gaster, *The Oldest Stories in the World* (Beacon Press, 1958), 테오도르 H. 가스터 저, 이용찬 옮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평단문화사, 1985). 238-240쪽.

해하려는 무의식적 원형을 제공하는 뿌리의 역할을 했다는 모뤼스(2000)의 말 역시 이런 측면을 잘 드러낸다.⁴¹⁾ 신화와 종교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목적으로 한다는 용의 설명⁴²⁾이나, “우리는 이제 혼자 모험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 시대의 영웅들이 우리를 앞서 이 여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궁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우리는 이제 영웅이 길에다 깔아놓은 실을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캠벨(1991)의 말⁴³⁾은, 자신의 삶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하고서도 그에 대한 적합한 해석과 위안을 찾을 수 없을 때 인간이 집단 무의식에서 추출한 신화에 기대어 그 경험을 해석하고 위안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화는 일종의 종교적 역할을 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IMF 이후 국가적인 영웅부재와 공허한 상태를 메꾸어 주었던 황우석이라는 영웅의 실체가 있지도 않은 연구결과를 있는 것처럼 허위로 포장한 연구사기를 저지른 자였음이 알려진 현 시점에서, 공허를 메꿔 주던 영웅이 다시 해체되어 버리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경험을 강요받은 한국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경험을 해석하고 위안을 받으려 하는가. 이 분석을 위해 우선 황우석 신화가 가진 속성을 캠벨의 12단계 이론에 적용해 보겠다.

우선 첫 단계인 보통세상의 단계가 있다. 황우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출판된 황우석 위인전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 평범하게 농촌에서 소를 몰며 자란 황우석을 이야기한다. 이 시기 황우석이 이미 ‘소’라는 객체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황우석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형성한다.⁴⁴⁾ 또 소와 인연을 맺는 이야기는 영웅신화의 다음 단계인 모험에의 소명과도 이어진다. 황우석은 어린 시절 자신의 미래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이것은 조연자와의 만남, 첫 관문 통과에 해당한다. 모험을 받아들인 영웅은 보통세계를 떠나 생명공학이라는 ‘특별한 세상’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후 특별한 세상에서 영웅 황우석은, 무엇이 특별한가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는 황금박쥐인맥의

41) V. Maurus, Voyage au pays des mythes (Calmann-Levy, 2000), 베로니크 모뤼스 저, 이선임 옮김, 『신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해바라기, 2002) 6쪽.

42) J. Campbell, Myths To Live By (1972), 조지프 캠벨 저, 이은희 옮김, 『신화와 함께 하는 삶』 (한숲출판사, 2004).

43) J. Campbell, and B. Moyers, The Power of Myth (Random House, 1991),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229쪽.

44) 황우석 영웅신화에서 ‘소’는 특히 중요한 객체로 작용한다. 소는 이후 그가 수의과대학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점, 체세포복제를 통해 영롱이라는 복제소를 영국의 돌리 팀 다음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동물이다.

형성, 노성일 이사장과의 만남, 문신용 교수 등 연구팀과의 만남, 독보적인 난자핵 탈핵기술을 보유한 박을순 연구원의 존재가 해당된다. 특이한 점은 항상 황우석과 함께 언론에 등장하여 황우석의 '부드러운' 퍼스나로서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던 안규리 교수의 존재다. 이는 영웅신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영웅을 옆에서 돕는 여신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또 "성스러운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역시 영웅의 임무 수행을 돕는 존재이다. 이들은 여섯 번째 단계인 '협력자'로서 존재한다. 여기서의 시험 혹은 적(敵)은 생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영웅이 부딪혀야 했던 많은 작은 시련들을 지칭할 것이다. 가령 생명윤리학자들의 집요한 의문제기, 가톨릭계와의 작은 알력, 구하기 힘든 인간의 난자, 연구 단계의 여러 난제들이 이에 속한다. 이 과정은 또한 일곱 번째 단계인 시련으로의 접근과정이기도 하다.

여덟 번째 단계는 시련이다. 영웅 담론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가 이 단계다. 황우석의 경우 2005년 봄 정전사고 및 곰팡이 오염 등으로 그동안 애써 키우던 줄기세포를 모두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황우석 연구팀 스스로 "매우 커다란 위기"로 평가한 이 경험이 바로 시련의 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의 단계가 따른다. 이 단계는 영웅이 위기를 극복한 데에 대한 보상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황우석의 경우 Snuppy의 세계언론 보도, 줄기세포도 살리고 연구결과가 Science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된 것, 그리고 세계 줄기세포 허브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설립한 것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귀환의 단계가 있다. 모험이 끝난 영웅이 특별한 세상을 떠나거나 특별한 세상에서 벗어나려다가 추격을 당하는 단계다. 황우석의 연구가 아직 난치병 치료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였기에 황우석이라는 영웅은 좀 더 특별한 세상인 생명공학의 연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는 아직 귀환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의 귀환은 예정된 것이다. 황우석은 특허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수입을 자신이 갖지 않고 전액 국가에 환속한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특별한 세상에 머물지 않고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미리 천명한 상태다. 이는 앞으로 그가 영웅캐릭의 사이클을 완수할 인물이라는 확신이 더욱 들게끔 만든다.

여기까지가 황우석이 그동안 걸어온 단계이다. 현 단계는 아직 그가 연구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에 특별한 세상에서 귀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귀환에 앞서 최후의 시련이라 할 수 있는 추적이 따른다. 이는 영웅이 쉽게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영웅으로서 황우석도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계가 바로 줄기세포 스캔들, 이른바 황우석 사건에 해당한다. 황우석이라는 영웅은 그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루며 영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시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MBC 피디수첩 이후 그가 겪게 된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황우석 지지자들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분명한 연구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말 현재까지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황우석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무의식상태에 존재하는 원형신화와 황우석 사건을 강하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초반부에서 언급하였던 극히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명의 지성인들이 여전히 황우석을 지지하는 것은 이에 연유한다. 그들의 이성적 판단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심층적 무의식 수준에서 그들은 황우석 사건을 영웅의 신화와 연계짓고 있으며, 이 연결작용이 강하게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황우석 지지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 나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남은 두 단계의 영웅의 궤적을 살펴보고, 황우석 지지자들의 행적을 언론에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열 한 번째 단계는 바로 부활이다. 원형신화에 의하면 황우석은 2006년의 고초를 극복하고 부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단계가 묘약과의 귀환이다. 황우석 신화에서 이 묘약의 정체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숙원인 난치병·불치병의 치료가 될 것이다. 심지어 황우석은 줄기세포연구를 통해 하반신마비가 된 장애인의 신경계통을 활성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휠체어를 버리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을 것임을 공언하기도 하였다.⁴⁵⁾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단어 그대로 현대과학이 제조한 '묘약'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황우석은 마지막 두 단계를 남기고 최후의 싸움을 쉽게 이기지 못하였다. 이것이 황우석 지지자들로 하여금 다음의 행동들을 취하게 한 원인이다.

2006년 1월 19일 오후 1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 MBC 1층 로비에서 28세 이모씨가 황우석 사태는 방송국 책임이며 그를 살려내라고 주장하며 미리 준비한 농약 100cc를 마시고 음독자살을 기도하였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고 치료 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⁴⁶⁾

2006년 2월 4일 오전 6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부산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59세 정 모씨가 황우석의 연구재개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린 뒤 스스로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하였다.⁴⁷⁾ 경찰이 도달했을 때 이미 사망한 그는 황우석의 연구재개·영웅의 부활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자이다. 이 사건 이후 황우석 지지자들의 반응 역시 이 해석을 지지한다. 그들은 무분별한 정 모씨의 행위를 비난하

45) 황금박쥐의 일원인 정통부장관 진대제가 발행한 황우석 기념우표의 좌측에는 피펫으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우측에는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던 하반신마비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법의 영향으로 발떡 일어나 환호하고 가족들과 포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기호가 상징하는 바는 매우 자명하다.

46)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1/20060119034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361.html>.

47)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2/200602040035.html>.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2/h2006020611184121950.htm>.

지 않고 오히려 그를 기리는 3천명이 모인 촛불집회를 가졌으며,⁴⁸⁾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에도 사이버분향소를 설립하여 그의 행위를 칭송하였다.⁴⁹⁾

이수영 웹젠 사장이자 난자기증운동본부장은 황우석을 가리켜 시스템의 미비로 생기는 일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묘사하였고 황우석 지지자들은 이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영웅상으로 묘사하였다.⁵⁰⁾ 닉네임 '성탄절'의 네티즌은, 서프라이즈에 적은 글에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16절을 인용하며 「그분처럼 고난받으시는 황교수님을 위해 목상합니다」라는 황우석 지지글을 남겼다.⁵¹⁾

황우석 지지자들이 황우석 사건을 영웅신화와 동일시한다는 경향은 닉네임 '신의손'이 서프라이즈에 남긴 「황박사님의 고난에 대해서」라는 글의 첫 머리에 극단적으로 잘 드러난다. 그는 “황박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그 시발점이었고, 앞으로 (연구결과가) 계속 쏟아질 것이다. 그걸 이 무식한 대한민국이 막은 거다. (황박사의 연구가 성취된다면) 국가 순이익은 33조x100년 정도 예상된다.”라고 적으며 마지막 싸움에서 쓰러진 영웅-황우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였다.⁵²⁾

아이디 'ghkdrmfk'의 네티즌 또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황교수님이 부활하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아침 태어나서 처음 기도라는것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건줄도 모르지만 무작정 황교수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잠시나마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저의 행동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중략) 저는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해 다시 한번 부활하시어 저희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맞다면 황교수님께서서는 반드시 다시 부활 하십니다. 그것이 DNA검사 후가 될지 검찰조사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황교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영웅신화의 궤적을 거쳐 황우석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하였다.⁵³⁾

한편 많은 황우석 지지자들이 그를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대비하여 비유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닉네임⁵⁴⁾이 '영웅'인 한 네티즌은 서프라이즈에 적은 「황우석은 우리들

48)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2/200602040162.html>.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2/200602040155.html>.

49)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2/200602040098.html>.

50)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703895.

51)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708279.

52)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702526.

(띄어쓰기 및 괄호는 필자 편집)

53)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708441.

(띄어쓰기 및 문법오류는 필자 수정)

의 영웅이다」라는 글에서 MBC·오마이뉴스·프레시안등이 영웅 이순신을 죽이려는 무리와 같다며 “황우석은 이순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⁵⁵⁾ 동명이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동일한 닉네임으로 적힌 「왜 영웅출현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글에서도 같은 논지를 발견할 수 있다.⁵⁶⁾

또 황우석 지지자들은 3월 25일의 여의도 집회를 “3.25 여의도 대첩”이라고 부르며,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의 대문에는 백의종군을 했던 충무공의 사진과 무궁화 사진을 걸어놓고,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말로 황우석의 부활에 대한 기대심리를 표출하였다. 이들은 또한 팩스번호 032-581-543x로 서명을 받으며⁵⁷⁾ 황우석의 연구재개를 위하여 “추적60분 방영 및 특허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⁵⁸⁾

황우석 지지자들의 온라인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였다. 이들은 황우석을 영웅신화의 주인공으로 인식하였고, 그가 반드시 부활(연구재개)할 것이라는 신념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닉네임 ‘가름이’를 사용하는 한 황우석 지지자의 블로그에서 인용한 글로 이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인용을 마치겠다. 「박사님이 미칠듯이 뵈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라는 글의 맺음말 부분에서 그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즐기세포를 강탈해 갈 수 없으며 더더욱 박사님의 일생 전체를 짓밟는 천인공노할 짓에 대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이 박사님 당신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싸워 어떤 무엇일지라도 응징할 것임을 감히 말씀 올립니다. 박사님... 작아지고 지쳐가려는 세계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변함없이 제 염원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당신께서는 영웅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라며 황우석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⁵⁹⁾4. 결론을 대신하여

54) 아이디와 닉네임은 다르다. 닉네임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아이디는 한 번 만들면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또 다시 생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닉네임의 경우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으나 아이디가 드러난 글에 대해서는 동일인물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였다.

55)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744549

56)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687501

57) <http://pds27.cafe.daum.net/download.php?gpid=qVer&fldid=Au9i&dataid=2&fileid=2®dt=20060508212435&disk=23&grpcode=ilovehws&dnCnt=Y&hwp> (팩스를 활용한 연명부서명양식은 이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58) http://cafe207.daum.net/_c21_/bbs_read?gpid=qVer&mgrpId=&fldid=Au9i&page=10&fb_sdepth=&lastbbsdepth=~~~~~&contentval=0000~~~~~&datanum=2 (아이러브황우석 카페의 이 주소에서 팩스서명운동의 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59) ‘가름이’란 황우석 지지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daum.net/gyarummiffy> 이다. 이 글은 디씨인사이드의 과학갤러리에서 재인용하였다. (출처:http://kr.dcinside14.imagesearch.yahoo.com/zb40/zboard.php?id=science&page=1&sn1=&divpage=32&banner=&sn=on&ss=on&sc=on&keyword=영웅&select_arrange=headnum&desc=asc&n)

이상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면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황우석 지지를 철회하지 못하는 단면들이다.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비논리적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 필자는 이 글에서 융의 집단무의식이 주장하는 원형의 개념과 이를 비교신화학에 도입한 캠벨의 이론을 제시하였고, 황우석 지지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신화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울 때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한다. 이러한 점은 캠벨의 신화연구 자체가 양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다수의 서양인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느끼던 때 꽃을 피웠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⁶⁰⁾ 신화적 접근은 황우석 지지자들의 행위가 하나의 범례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점은 안진태(2005)의 다음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화는... 인간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도 선례와 범례가 된다. 더 적절하게 말하면, 현실의 양태 일반에 대한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례, 의미있는 행동은 신화적 원형의 반복이다.”⁶¹⁾

안진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신화는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존재론적 기능, 의사교환적 기능, 종합적 기능과 인류학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이 중 존재론적 기능은 다시 세 가지 역할로 나뉘는데 이들은 대상에의 실재성 부여, 대상에의 확실성 부여, 인간 활동에의 의미부여 역할이다.⁶²⁾ 황우석 지지자들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황우석 사건을 원형신화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관계 속에서 황우석의 부활을 지지하는 자신들의 행위에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그들은 영약(줄기세포를 활용한 의료 및 경제적 혜택)을 가지고 귀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영웅이 최후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신들의 노력이 이 영웅의 성공적인 귀환을 이끌어 전체 사회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동일시를 강하게 하는 자들은 성공적인 결말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생업 내지는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2006년 5월 24일(목) 오후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가진 ‘무타스님’⁶³⁾과의 즉석 인터뷰에서 그는 검찰발표에 의문을 표하였고, 서울대조사위원회의 처녀생식이라는 결론을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함과 동시에 불교계에서 650억을 지원하여 연구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표출하였다.

이들의 희망은, 조셉 캠벨이 천일야화를 인용하며 한 말인 “신화는 당신이 걸려 넘어지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⁶⁴⁾라는 언술의 의미를 이해시켜준다.

o=182644)

60) 정영목, 『역자의 말』, J. Campbell, *The Masks of God, Vol. 4: Creative Mythology* (Viking Press, 1968), 조지프 캠벨 저, 정영목 옮김, 『신의 가면 IV. 창작 신화』 (까치, 2002). 846쪽.

61) 안진태, 『엘리아데-신화-종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19쪽.

62) 안진태, *Ibid.*, 376-382쪽.

63) 몇 주 동안 서울대학교 정문에 텐트를 치고 연구재개를 위한 농성을 하셨던 스님이다.

‘90년대 말과 21세기 초엽 유일한 국민적 영웅으로 존재하던 황우석이 연구사기를 범한 학자였음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일종의 패닉상태를 경험하였다. 이처럼 ‘절려 넘어진’ 곳에서 방어기제의 한 형태로 황우석 사건을 우리의 무의식에 내재된 영웅신화의 원형과 연결시킨 사람들이, 그들이 취해야 할 매우 의미있는 행동(‘당신의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황우석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였다.

애니메이션을 통한 일본 민족신화의 현대적 구현을 연구한 김윤아(2005)는 어떤 담론이 “인류 보편정서에 호소하는 신화적인 구조를 택할 때 무척 센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밝히고 있다.⁶⁵⁾ 더욱이 음은 “개인이 원형을 경험하면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원형의 힘에 사로잡혀 기묘하고 신비하고 동시에 황홀한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된다고 말하였다.⁶⁶⁾ 황우석 사건을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원형신화와 연결한 사람들이 열렬한 황우석 지지집단의 일부를 구성했던 것이며,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원형과 동일화 시킴으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앞선 인용문에서 음이 강조하듯 이러한 경험은 종교적 도취에 가까운 정도의 강한 암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 가능한 가설이라고 필자는 결론지으려 한다.

64) Joseph Campbell in conversation with Michael Toms, *An Open Life*, selected and edited by John M. Maher and Dennie Briggs (Perennial Library, 1990), p. 26. (홍윤희, 『신화의 이미지』 역자서문에서 재인용).

65) 김윤아, 『미야자키 하야오』 (살림, 2005), 86쪽.

66) C.G. Jung, “Psychology and Religion” (1940), in CW 11, par. 6. (김재영, 『칼 구스타프 융의 신화이론』,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신화와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79쪽에서 재인용).

<참고 문헌>

- 강신익,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문화 진단」,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주최,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의 과학과 민주주의』 심포지움 발표문, 2006년 2월 2일.
- 고준환, 『덧에 걸린 황우석: 긴급보고서』 (도서출판 답게, 2006).
- 기호학 연대, 『기호학으로 세상 읽기』 (소명 출판, 2002).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 김성도, 「소쉬르 기호학 서설」, 한국기호학회 엮음, 『기호학연구 1: 문화와 기호』 (문학과지성사, 1995), 11-38쪽.
- 김윤아, 『미야자키 하야오』 (살림, 2005), 살림지식총서 제 194권.
- 김인식, 「롤랑 바르트의 초기 기호학: 바르트의 기호학적 모험 1」, 한국기호학회 엮음, 『기호학연구 1: 문화와 기호』 (문학과지성사, 1995), 39-61쪽.
- 김인식, 「바르트 기호학의 해체: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모험 2」, 한국기호학회 엮음, 『기호학연구 2: 현대사회와 기호』 (문학과지성사, 1996), 121-143쪽.
- 김인식, 「바르트의 후기 기호학: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모험 3」, 한국기호학회 엮음, 『기호학연구 3: 삶과 기호』 (문학과지성사, 1997), 380-403쪽.
- 김재영, 「칼 구스타프 융의 신화이론」,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신화와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69-88쪽.
- 김채수 편저, 『후기구조주의를 넘어서』 (도서출판 세손, 1992), 과정학과 문예연구 제 2권.
- 박정혜·심치열, 『신화의 세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박지향 외, 『영웅 만들기: 신화와 역사의 갈림길』 (휴머니스트, 2005).
- 베르나르 투쟁 저, 윤학로 옮김,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청하, 1987).
- 신동욱 외,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고려원비평신서 제 4권.
- 안진태, 『엘리아데·신화·종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 오선민, 「전쟁서사와 국민국가 프로젝트」, 이승원 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 윤일권·김원의, 「신화의 산책길에 초대하며」와 「제 1장. 신화의 생성과 전승」,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 문화』 (문예출판사, 2004).
- 이승원 외, 『국민국가의 정치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3).
- 이인재, 「황우석 교수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문제와 연구윤리」, 『ELSI 연구』, 제 4권 제 1호: 121-157.
- 이창익, 「신화와 의례의 해석학적 차이에 대한 물음」,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신화와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17-141쪽.

이현미, 「한국의 영웅론 수용과 전개, 1895-1910」,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학위 논문(2004년 2월).

전동열 『기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문학의 기본개념 제 10권.

전방욱, 「우리나라 언론보도에 나타난 배아복제 연구자들의 수사 분석」, 『생명윤리』, 제 6권 제 1호(통권 제 11호): 109-122.

홍성태, 「황우석 사태와 한국 사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주최,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의 과학과 민주주의』 심포지움 발표문, 2006년 2월 2일.

Barthes, R., *Mythologies* (Seuil, 1957), 롤랑 바르트 저,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문예신서 v.193.

Bennet, E. A., *What Jung Really Said*. (Little Brown, 2001, New Edition), 에드워드 암스트롱 베넷 저, 김형섭 옮김, 『한권으로 읽는 융』 (도서출판 푸른숲, 1997).

Bierlein, J. F., *Living Myths: How Myth Gives Meaning to Human Experience* (Ballantine Books, 1999), J. F. 비얼레인 저, 배경화 옮김, 『살아있는 신화』 (세종서적, 2000).

Bierlein, J. F., *Parallel Myth* (Ballantine Books, 1994), J. F. 비얼레인 저, 현준만 옮김, 『세계의 유사 신화』 (세종서적, 1996).

Campbell, J. and Moyers, B., *The Power of Myth* (Random House, 1991),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Campbell, J. *Myths To Live By* (1972), 조지프 캠벨 저, 이은희 옮김, 『신화와 함께 하는 삶』 (한숲출판사, 2004).

Campbell, J.,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Univ. Press, 1949),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Campbell, J., *The Masks of God, Vol. 1: Primitive Mythology* (Viking Press, 1959), 조지프 캠벨 저,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I. 원시 신화』 (까치, 2003).

Campbell, J., *The Masks of God, Vol. 2: Oriental Mythology* (Viking Press, 1962), 조지프 캠벨 저,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II. 동양 신화』 (까치, 1999).

Campbell, J., *The Masks of God, Vol. 3: Occidental Mythology* (Viking Press, 1964), 조지프 캠벨 저, 정영목 옮김, 『신의 가면 III. 서양 신화』 (까치, 1999).

Campbell, J., *The Masks of God, Vol. 4: Creative Mythology* (Viking Press, 1968), 조지프 캠벨 저, 정영목 옮김, 『신의 가면 IV. 창작 신화』 (까치, 2002).

Campbell, J., *The Mythic Image* (Princeton Univ. Press, 1974), 조지프 캠벨 저, 홍윤희 옮김, 『신화의 이미지』 (살림, 2006).

Campbell, J., *Transformations of Myth Through Time* (Harper Perennial, 1990), 조

- 지프 캠벨 저, 과학세대 옮김, 『신화의 세계』 (까치, 1998).
- Cruse, A., *The Book of Myths* (Gramercy, 1993), 에이미 크루즈 원저, 배경화 편역, 『이야기 세계의 신화: 33가지 신화로 보는 인류의 역사』 (푸른숲, 1998).
- Csapo, E., *Theories of Mythology* (Blackwell Publishing, 2005).
- Frazer, J. G.,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 (Kessinger Publishing, 1923), J. G. 프레이저 저, 이양구 옮김, 『문명과 야만』 (강천, 1996).
- Gaster, T. H., *The Oldest Stories in the World* (Beacon Press, 1958), 테오도르 H. 가스터 저, 이용찬 옮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평단문화사, 1985).
- Hathaway, N., *The Friendly Guide to Mythology* (Penguin, 2001), 낸시 해더웨이 저, 신현승 옮김, 『세계신화사전』 (세종서적, 2004).
- Jung, C. G., *Archetyp und Unbewusstes* (Walter-Verlag, 1984), 칼 구스타프 융 저,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솔, 2002), Grundwerk C. G. Jung 융 기본저작집 제 2권.
- Maurus, V., *Voyage au pays des mythes* (Calmann-Levy, 2000), 베로니크 모뤼스 저, 이선임 옮김, 『신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해바라기, 2002).
- Rosenau, P. M.,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structions* (Princeton Univ. Press).
- Trifonas, P. P., *Barthes and the Empire of Signs* (Totem Books, 2001), 피터 페리클레스 트리포나스 저, 최정우 옮김, 『바르트와 기호의 제국』 (이제이북스, 2003).
- Vogler, C., *The Writer's Journey* (Michael Wiese Productions, 1998), 크리스토퍼 보글러 저, 함춘성 옮김,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도서출판 무우수, 2005).
- Voitilla, S., *Myth and the Movies* (Michael Wiese Productions, 1999), 스투어트 보이틸라 저, 김정식 옮김, 『영화와 신화』 (올유문화사, 2005).
- 김환석, 「'노빠'와 '황빠', 『한겨레』 (2006년 1월 3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521.html>
- 백승원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http://ebsw.co.kr>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즐기세포 논문조작사건 수사결과」, 2006년 5월 12일 검찰발표자료
http://seoul.dpo.go.kr/download.tdf?table=gp_board_file&d_seq=506&d_idx=4&d_board_id=sppo_press
- 홍성욱,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현대과학사」 2006년 1학기 강의노트 (필자 기록).
- “monomyth”,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onomyth>

2006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 학술대회

「노짱 토론방」, 『정치포탈! 칼럼뉴스 서프라이즈』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list_new.php?code=seoprise9&search_m=1)

『아이러브 황우석!』, <http://cafe.daum.net/ilovehws>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 <http://cafe.daum.net/hwangjikook>